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표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 45:9-15)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표현합니다(대상 16:11, 대하 7:14). 반면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다' 라고 합니다(신 31:17, 시 27:9).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사 45:15).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가운데도 주의 경건한 백성들은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은 더 깊은 절망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 계시다면 그는 숨기라도 하신 것일까?"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By Yearning For God

(Is. 45:9-15)

In the Bible, praying expresses 'to seek God's face' (1 Chr 16:11, 2 Chr 7:14). On the other hand, when the response of prayer does not appear quickly, it indicates 'to hide God's face' (Deut 33:17, Ps 27:9).

"Truly you are a God who hides himself, O God and Savior of Israel (Is 45:15).

The prophet, Isaiah foretold that Israel would perish due to the idol worship of Israelites and they would be called as Babylonian prisoners of war. During that period, the Lord's devoted people earnestly prayed, but Israel would fall into an abyss of deeper despair. Then, the Israelites asked the following question to God.

"Is God really living? If He is living, is he hiding Himself?"

1.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우리는 때로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가끔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경험한 청년 시절의 괴로움은 결국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는 결론을 내리는 일에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2.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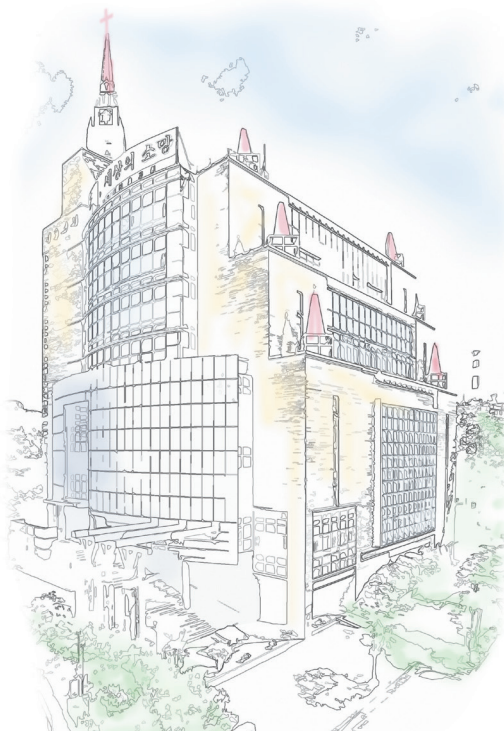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중에서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려 알기 까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으시다 라는 선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3. 하나님은 불변하신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을 알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날에는 그와 동일한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이 진실입니까? 당신은 여전히 불변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은 그 본 존재의 불변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론의 불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니라"(사 55:8).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질 그릇된 인생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왜 이렇게 만드느냐?"고 묻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며 참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Is God love?

When we sometimes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we begin to entertain a doubt about that God is love. The suffering that Joseph experienced in his youth made him live a blessed life. Therefore, when we see the realities of life, we never hesitate to conclude that God is not love.

2. Is God omnipotent?

When our pray is not answered quickly, we often think that God is not omnipotent. But you must know that the method that we wan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method that God works. Therefore, until you fully understand God's whole will, you never foolishly conclude that God is omnipotent.

3. Is God unchangeable?

We believe God's many miracles that he performed through the Bible and the history of Christianity. And now, many people say that nowadays such a miracle similar to it does not happen. They also ask, "Is it true that God who was yesterday is the same as today?" "Is he unchangeable?" What God is unchangeable is that his existence is unchangeable but His response method is not unchangeable.

My beloved Christians,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Is 55:8). God's will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Israelites'. God asks, for a potter to make a pot, "Is it appropriate for asking you, what are you making? Why do you make like this?" At the moment when we forgot His creation, we are full of arrogance.

In the unknown hardship, by yearning for God and enjoying the peac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새해맞이 온가족 성경통독대회

에스라~아가, 빌립보서~데살로니가후서
1월 14일(목)~15일(금) / 9:30~17:00



2016년을 맞이하여 온가족 성경통독 대회를 1월 14일(목)~15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는다. 성경통독범위는 구약 성경 에스라부터 아가까지, 그리고 신약성경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후서까지이다.

회비는 1만원이며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참가를 바란다.

비전2020후원자의 밤 1월 17일(주) 찬양예배 후 - 801호



우리교회는 “비전2020운동(본부장 : 최광성 장로) 후원자의 밤” 행사를 1월 17일(주) 찬양예배 후 801호에서 갖는다. 후원자의 밤 행사에는 해병대사령부 중앙교회, 육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육군 3사단, 20사단, 22사단, 23사단, 해병대교육훈련단 교회 장

병들과 우리 교회 파송 군선교사 6명 등이 참석한다. 군 복음화를 통하여 민족의 75%를 복음화하는 이 원대한 비전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주 제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부서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유아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바르게 믿어요!	박노철 목사 구본혜 전도사
유치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순종할래요	박노철 목사 양세라 목사
유년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터치 & 액션	박노철 목사 고수는 전도사
초등부	2월 26일(금)~27일(토)	서울교회	터치 & 액션	박노철 목사 심진희 목사
중등부	1월 21일(목)~23일(토)	아가페타운	주님과 함께 RESTART!	박노철 목사 이진광 전도사 천세중 목사
고등부	1월 15일(금)~16일(토)	아가페타운	쓰임 받는 그릇	박노철 목사 천세중 목사
청년1부 청년2부	2월 18일(목)~ 20일(토)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청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박노철 목사 정요셉 목사 (전 안양제일교회 대학부 총괄) 서준권 목사 정대은 목사 장재원 전도사
사랑부	2월 14일(주)	서울교회	믿음으로 순종해요	박노철 목사 박영준 목사
에바다부	2월 27일(토)	서울교회	사랑과 섬김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디아스포라부	2월 13일(토)	서울교회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박노철 목사 서명철 목사
영어예배부	1월 29일(금)~30일(토)	아가페타운	Witness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김다니엘 목사

2016 섬김위원 변경

- 가브리엘 찬양대 : 부대장 - 석춘희
소프라노 - 조성경 베이스 - 양진영1
- 호산나찬양대 : 소프라노 - 김서윤 장기숙 전화진
메조 - 박경숙 알토 - 김성자
- 서울음악교실 : 지도 - 박정선 최유현
반주 - 박승기
- 유치부 : 노선균, 김의정
- 어린이 찬양예배 : 부장 - 강재훈
- 계수 : 1부 - 손병석, 신해진

교회관리프로그램 (지저스온) 전산실무교육

교회학교: 1월 10일(주) / 교구: 1월 17일(주)

멀티미디어부(부장 오정수 장로)는 2016년 각 부서 전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저스온 프로그램 전산실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교육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라며, 미참시 611호에서 개별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 사용법을 숙지하기 바란다.

1. 교회학교 실무교육

- 대상 : 교회학교 부장/부감, 지도교역자, 전산담당자(부장 참석 필수)
- 일시 : 1월 10일(주) 오후 3시 30분
- 장소 : 202호

2. 교구간사 실무교육

- 대상 : 교구 교역자, 교구장/부교구장, 교구간사
- 일시 : 1월 17일(주) 오후 3시 30분
- 장소 : 202호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아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 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연말정산 후 즉시 파기할 예정입니다.)

· seoulch@hanmail.net

· 문의전화 : 02-558-1106 / 담당: 송미라 권사

기록물 제출공고

교회는 지난 한 해 작성된 각종 기록물들을 제출받는다. 당회이하 모든 부서의 서거나 기록담당자는 2015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예배일지 및 회의록, 출석부, 보고서, 주보, 인쇄물, 주요사진 등 각종 기록물을 1월말까지 순례자실(704호)로 제출해 주기바란다. 또 2015년 이전 과거 기록물도 보관중인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 컴퓨터파일인 경우엔 cyc@hanmail.net으로 올려주기 바란다. 파일 제목에는 부서명과 기록물명, 담당자명을 써주기 바란다. (예: 초등부 회의록 홍길동)

담당: 권재현 집사(멀티미디어단 전산 및 사료팀장)
노장훈 집사 (순례자 차장)
최영철 집사

2016 일꾼들에게 듣는다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역사를!

스데반 집사를 본받아



김광욱 집사
(스데반회 회장)

올 한 해 스데반회 회원들은 스데반 집사를 철저히 본받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칭찬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속에 선교, 구제, 교육에 힘쓰며 모이기와 기도에 힘쓰는 스데반회가 될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솔선수범하며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고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스데반회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성도님들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찾아가 주

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사소통이 서로 이루어지고 건강한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안에서 자유롭게 당당하며 활기차고 씩씩한 스데반회, 순수하고 깨끗한 스데반회가 되도록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한 스데반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하지 못한 섬김과 충성으로



이영숙 권사
(제2권사회 회장)

제2권사회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선배 권사님들의 훌륭한 믿음과 눈물의 기도와 헌신,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들이 영화의 필름처럼 스쳐가며, 너무나 부족하고, 함량 미달된 저의 모습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새로운 깨달음이 왔습니다.

서울교회를 통하여 주셨던 그 큰 은혜의 바다 속에서 살아왔음에도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지 못한 충성, 더 내려가지 못한 섬김 더 낮아지지 못한 봉사를 채우라고 주신 보너스 기회로 받으며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려합니다. 서울교회 권사회의 목표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간직한 모범적인 교회로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에 전념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권사회가 되도록, 266명의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교회를 섬기며 구석지고 소외된 곳 병약한자들 심방,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교회 위해



정미연 권사
(제1권사회 회장)

2016년 한 해가 하나님 축복 속에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서울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서울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심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모든 권사들 중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제게 크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기에 더 힘써 동역하실

권사님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에 교회에 꼭 필요한 제1권사회가 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185명의 제1권사회원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예배의 자리에 분이 되며, 기도하는 곳에 늘 함께 하고, 봉사의 손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랑이 필요 하는 곳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제1권사회, 교회 부흥을 위해 사랑의 띠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되는데 우리 제 1권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승완
(고등부 회장)

과란만장했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발전이 있었던 2015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회장으로 선출된 저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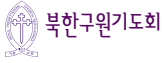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마태복음 20 장 26~27절 말씀에 따라 저는 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고등부를 위해 항상 헌신 하고자합니다. 무엇보다 중등부에서 올라온 후배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고등부의 일원으로서 영적 활동을 활

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16년 1월 15일부터 1월 16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화평을 이루는 고등부”라는 표어를 가지고 아가페 타운에서 겨울수련회가 열립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 음식과 상품 등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며 고등부 학생회, 찬양팀도 수련회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는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영적으로 편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학업의 스트레스를 덜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1박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열리는 북한 구원을 위한 기도회가 203회를 맞이하며 지난 1월 4일 오후 7시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북한구원 기도회는 민간단체 세이브 NK가 주관하는 것으로 2004년 이후 매월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이 날 기도회에서 이종윤 원로 목사님(세이브 NK 공동회장)은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롬 9:1-5)이라는 제하의 설교를 하며 "사도 바울에게는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에 처한 동족이 하나님께 버림 받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 그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길만이 민족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고 동족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던졌다. 해방 직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가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 경제대국, 선교강국이 된 것은 결코 민족의 우월성이나 근면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이 나라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거나 수가 많아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을 삼기 위하심이었던 것처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유와 풍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된 대한민국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나라이다. 우리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에 기반을 둔 자유, 정의 평화통일과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은 우리의 통일 이념이다.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 하나님이 쓰실 나라를 말한다. 사도 바울의 애국심은 사랑에 근거한 애국심이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번민하거나 희생해 본적이 있는가? 학대받는 동족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저들을 돕고 사랑해 본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졌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현실의 암울함 속에서도 미래에 주실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바라본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애국자가 되어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나라,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역군이 되자"고 했다.

북한 구원을 위한 민간단체 세이브엔케이는 1999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로 출범했다. 그간 국내에 입국한 2만 8천여 탈북민 중 약 2,000여명의 탈북민을 구출·지원했고 탈북민과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며 통일공론화사업, 전문분야의 통일 이후 통합방안 연구, 통일문화 확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통일 준비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다음 기도회는 2월 1일 오후 7시 신반포중앙교회에서 열린다. 동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바란다.

글, 사진 : 허숙 권사(편집부)

비전2020운동 후원자

박노철 김은경(10) 안창휘(1) 이성우(1) 김유경(2) 류종기(1) 황병석(1) 남영주(2) 이성애(1) 박광수 김정자(1) 박하나(1) 김성준 김선영(3) 하정자(1) 김휘 김예원(2) 이금순(1) 차영도(1) 이경희(3) 황난옥(1) 김요섭 이인숙 4(2) 박권선 양현주(5) 정춘해(1) 최근배 양종숙(5) 이광배(20) 노제현(3) 홍일성(1) 노병희 방덕자(10) 에스더 여전도회(2) 이동만(1) 루디아(2) 김재용 김재령(2) 제 2권사회(5)
(다음 주 계속)

한가족 한선교사 후원자

박노철 김은경(1) 박광수 김정자(0.5) 채혜숙(1) 정기자(1) 에스더(2) 김지영 김선혁(0.5) 제2권사회(1) 루디아(0.2) 이동만(0.5) 황난옥(1) 이광배(5) 김선석 문금희(1) 김승록 전미경(0.5) 정춘해(0.5) 류동석 이영미(1) 김요섭 이인숙(4) 전인성 정은순(1) 송영준(1) 제1권사회(2) 홍성미(0.5) 최근배 양종숙(0.5) 전성희 원유현(1) 노병희 방덕자(2) 황병석(0.5)
(다음 주 계속)

농어촌 100교회 후원자

박노철 김은경(1) 박봉진(1) 박권선 양현주(1) 최근배 양종숙(0.5) 이민호(1) 신아령(0.5) 제1권사회(2) 노제현(1) 김동수 정은순(1) 김승록 전미경(0.5) 이관규 이순영(1)
(다음 주 계속)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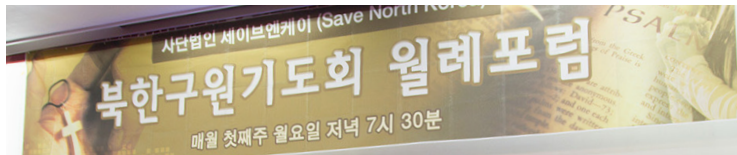
■ 이종윤 원로목사는 1월10일(주) 산본양문교회 제직헌신예배 설교한다. 1월12일(화) 종교개혁500주년기념사업회 재정위원모임에 참석한다. 1월15일(금) 기독교학술원 신년감사예배 설교한다.

■ 주일식당봉사 : 한나 전도회(1.10) 에스더 전도회(1.17)

■ 금주의 식사 제공 : 박수옥 권사, 황선영 성도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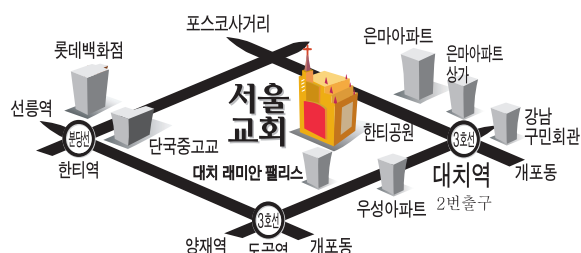
- 1월 14일(목)-15일(금) 새해맞이 온가족 성경통독대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 1월 15일(금)-16일(토) 고등부수련회로부터 시작되는 2016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미안마 비전트립을 통해 양근지역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하여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영어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요일예배	I 부 예배	오전 11시
	II 부 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당 II 층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